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方面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굴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 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關係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 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凡 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의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二、明代의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르지 아니하였다.

三、明代의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 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 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사항을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末리에 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四、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五、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들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體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六、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너너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七、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潛·潛·潛을 潛으로 통일한 따위이다. 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贊歎 따위. 그러나, 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오표를 붙였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겸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보여서 이가 아니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普通을 포함)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여의(マ、)을 붙였다.

二、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나타내려 하였다.

가、○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 즉, 先行의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干支^{先行}——干支^{後續} ○(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 干支와 後續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게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틀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카」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掲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成宗實錄

成宗十七年(成化二十二年).....	一
成宗十八年(成化二十三年).....	二〇
成宗十九年(弘治元年).....	七
成宗二十年(弘治二年).....	一二
成宗二十一年(弘治三年).....	一五
成宗二十二年(弘治四年).....	二四
成宗二十三年(弘治五年).....	四四

成宗實錄 卷一百九十五

十七年九月

〔參〕乙巳○御宣政殿引見永安道觀察使成俊啓曰永安南道節度使不可
不革若以爲先王所設不可革則移節度營於惠山甲山等處以除驛路
之弊他道節度使皆不挈家而獨南道及平安道節度使挈家而去吉城
明川二邑近於賊路亦得挈家皆甚不可且南道節度使營衙前猥多只
留數十人其餘則可減上曰當議諸大臣而處之中略俊曰斜麻洞萬戶梁
灌清介自守與軍卒同其食今遁爲司勇無以勸善宜加褒獎且口子萬
戶與僉節制使其勞苦無異而萬戶獨不得受祿未便上曰萬戶給祿曾
已議之當觀其議處之梁灌亦將用之俊曰會寧爲北道巨鎮今殘弊莫
甚又被水害平地盡爲白沙無田可耕墾山爲田所收無幾窮乏不自振

若置鎮于甫乙下之地則可耕而食也曩者議置寧北鎮以無戍兵而停若減南道節度使衙前又刷出軍戶餘丁則不患無戍兵也臣欲往審形勢而後更啓上曰然〔下略〕

〔參〕庚戌○命召領議政鄭昌孫等傳曰成俊請罷永安南道節度使不然則移其營于甲山惠山且盡減營衙前只留數十人又不使挈家赴任其議便否以啓〔中略〕李克培議世祖懲丁亥之亂遂置南道節度使以分南北之權聖慮深遠今不可以一時之弊輕革之節度使得其人則其弊自祛但移營甲山惠山及減衙前除挈家便否令該司議啓後更議〔中略〕傳曰從克

培議令兵曹議啓〔下略〕

〔參〕○以金繼宗爲折衝滿浦僉節制使

〔參〕○壬子永安道觀察使成俊辭還仍啓曰永安道人以雇工相傳如奴婢請限雇工之數且金丹多茂等欲由內地以還會寧其經由道路山川甚險雖許之可也傳曰野人無常其心難測不可輕許卿其往諭丹多茂使

從前路勿由內地而還可也

略下

甲寅○永安北道節度使卞宗仁馳啓曰兀狄哈來侵韓朶里時我若先知則其妻子牛馬預入城內可用輕兵救援如耕耘樵牧時虜若出其不意卒入搶擄而待彼來報領兵追逐則勢必不及命議于大臣鄭昌孫議卞宗仁之啓似可虜若不意突至則吾何以及救乎事勢如此則彼何怨我韓明澮議我若預知則當嚴兵以爲聲援若搶擄遠去則不宜興兵往追沈澮尹弼商李克培尹壕議預知聲息則韓朶里妻子許入保城內可矣若已被擄而我領兵往救則是代受其禍斷不可也盧思慎鄭恬李崇元慎承善朴星孫金克忸尹垓議韓朶里或因樵採或因耕穫而見擄於兀狄哈此事出不意彼雖來告勢必不及然不可坐視也當楊兵境上以示聲援不可輕爲追逐代受其禍也金謙光議韓朶里等預告兀狄哈來侵則將其妻孥

畜產許入城內以示救恤之意但兀狄哈與斡朶里結隙相攻已久先王朝只遣一介通事開解不曾興兵往救唯朴享遣兵救之反受辱焉敵加於已不得已而應之可也不加於我而遽爾往救以犯賊鋒非良策也上從明澮議

〔參〕乙丑—戊辰○兵曹啓世祖初設永安南道節度使非但爲甲山三水防禦之緊也因丁亥年李施愛之亂始置之以分南北道兵權此世祖宏規遠略而大將握重兵居內地亦是制勝之良策節度使亦有時領兵防戍于惠山鎮則不必違世祖神算移置于甲山一隅窮荒之地也且平安道節度使挈家以歸則獨不許南道節度使似不可也南道防禦雖視北道稍歇然有將則不可弱其軍卒以損威重也若只定數十人則於緩急難用矣請於元額六百量減二百命議于大臣鄭昌孫韓明澮沈澮尹弼商李克培尹壕議依兵曹所啓施行洪應議南道節度使以甲山三水爲賊

路要衝而設宜置營於惠山且減衙前之數勿令挈家不爲無益矣盧思慎議依兵曹所啓施行但營衙前如京中之皂隸羅將非軍卒也緩急無所用何必至五百之多乎略中傳于兵曹曰世祖初設南道節度使不必置營於北青而不移雖移置甲山有何害焉且領中樞之議以謂衙前非軍士緩急無所用今定額數亦爲多矣其又減之兵曹啓衙前減數誠如上教但甲山土地磽确禾穀不茂若移營于此則營中調度軍卒糧餉皆取辦於內地且諸鎮報牒之吏贏糧往來其弊不貲斷不可移營也傳曰以此意馳書于招撫敬差官金悌臣審定便否

乙丑—(戊辰)○兵曹據招撫敬差官金悌臣啓本啓金丹多茂欲來朝其妻子從內地發還然自惠山至北青雖天作重關不可使彼知道路迺直且一從情願皆聽上來有違前例請令金悌臣更以前言反覆開諭命議于大臣鄭昌孫韓明澮洪應尹壕議依兵曹所啓施

行沈澮議彼人誠心歸順欲爲邊氓而固拒之則誠非懷遠之意雖從情願豈有大害尹弼商議彼人所言一皆不從必懷忿不還然則國家處之爲難且北方早寒宜速區處若待金悌臣上來議之則恐不及處置姑擇其酋長從約上送其妻子從內地發還以絕留住之弊李克培議金丹多茂等使不得安接又不從情願勢窮事迫移入彼土於我其無損乎自惠山至北青道路甚險雖見之何以生患金悌臣目擊所啓不可不從盧思慎議從彼人情願庸何傷鄭恬李崇元議金丹多茂妻子從內地還本土似無弊而久在惠山大有害焉請從情願速令還本傳曰丹多茂必欲從內地還者以厭從來路還也自甲山至北青山川甚險彼人雖知豈有害哉從內地發還何如其問兵曹兵曹啓曰自甲山至北青雖山川險阻祖宗朝不許野人來通今許開路有害事體況李阿大已聽命從前路還丹多茂亦依

此發還待金悌臣聽言上來更議從之

〔參〕○是月築永安道長城姑林烟臺底一千二百二十五尺失號里洞口一千四百尺徐加洞四百六尺並高六尺鎮前西隅四百八十二尺都魏洞三百四十五尺無其洞三百六十五尺啄倉洞口二百六十三尺冷井洞八十三尺鵠鷄遷洞口二百二十八尺並高五尺

成宗實錄 卷一百九十六

十七年十月

〔參〕己卯○永安南道節度使呂自新書啓曰前者成俊請減營衙前專爲節度使於額外多占閑良軍卒而作弊也今於元額六百減二百只以四百分爲三番則三水甲山等鎮戍卒數少野人接待之時軍威不嚴請額外濫屬衙前俾役于本官其元額六百仍舊不減以實防戍傳曰道內諸鎮軍卒皆爲節度之用雖減營衙前何害況軍威之嚴不在士卒之多已與大臣議減之不可輕易變更也

〔參〕○平安道觀察使成俔上疏曰〔中略〕臣謹按虞夏之制分天下爲五服曰甸侯綏要荒隨地之遠近而納賦有輕重今本道卽中國之要荒也風氣不類中土人心不似近地加以困於力役憔悴無聊所當綏撫而安輯之也

其所以困於力役者無他赴京護送勞也沿邊防戍苦也臣請得以言之
赴京有聖節使正朝使千秋使其外有別禮奏聞使遼東押解官三年又
有管押使其護送人馬之數少則數十多則數百自義州至遼東其路不
適大槩五日程也夏則冒霖雨渡大河或阻淫潦或陷泥淖餼糧中絕飢
色可掬冬則遡北風凌積雪堅冰凝沍晨霜凜冽膚寒衣薄面如黑色口
噤不得語指直不得結馬如蝟毛拳曲不行人馬斃仆相繼於路前者未
還而後者繼起循環絡繹無有休息農事不暇顧妻子不得保言之可爲
於邑聖上安知至於此極乎江邊州郡六而僉節制萬戶之營八皆孤壩
小堡在山谷之間重峯疊嶂高插于天羊腸屈曲森如劒鋌其險阻不可
勝言往往蝸廬茅店依傍林麓荒草蒙密人烟鮮少夏則散耕于野冬則
驅入于城人馬枕藉城小難容雖名爲邑鎮其實不如富商大家大抵軍
卒皆南道之人賣田鬻宅贏糧負戈遠涉絕徼自十月至于二月年年防
戍解水而散其疲困不可勝言以疲困之卒禦無憊之寇然猶不寤者無

他獨恃山谿之險阻聖澤之洋溢而已聖上安知至於此極乎臣又見自

遼東而南海州蓋州之東至鳳皇山(鳳力)之麓其地廣遠不下數百里人家櫛

比禾稼被野生齒漸盛人皆不解漢語專用我國之言若見我人則爭問

鄉邑導其族屬土地膏饒征稅大輕遼東又置東寧衛綏撫不已臣妄謂

本道避役之民安知不投於彼當鴨水冰堅義州輒入之時雖長歌渡江

孰有遏之者乎夫永安道不如本道之多役毛憐衛又驚悍不順然於去

歲民有捲戶而躲入者而況以本道疲困(乏)之民而又有安撫之處乎此臣

所以惕慮也以本道防戍之苦護送之勞人困地薄荒廢空虛若比於他

道定租賦而使之重歛籍軍卒而使無餘丁人未安業皆欲逃散則雖年

年募民而徙居之無益也(下略)

己卯○永安北道節度使卞宗仁馳啓今聞亏乙未車火刺溫都骨
諸種兀狄哈將欲入寇請並徵南道下番軍卒以嚴防戍命議于領

敦寧以上及議政府兵曹鄭昌孫議彼人等謀欲受賞虛告賊耗者多矣然不可以爲虛事而不嚴邊備也宜令邊將整齊軍馬以待若南道軍卒則路遠徵聚有弊韓明澮議五鎮軍士凋弊若所報聲息實也則請令南道節度使率南道之兵往爲聲援聲息如或不絕又遣大臣措置備邊何如尹弼商沈澮尹壕議彼人所告雖不可盡信脫有不虞之變北道兵凋敝深可慮也請依卞宗仁所啓李克培議彼人所報賊變似未可信今不度虛實而先自驚動遽徵下番軍士非良算也令節度使整飭當番軍士嚴兵戍禦更探聲息虛實馳啓後更議盧思愼議城底野人來告聲息雖不可盡信然亦間有可驗之時不可不預爲防備也彼人雖長於野戰攻城非所長也今當冬月人民入堡主客之形旣異攻守之勢亦懸縱入爲寇城中之兵亦足易制今聞不的實之言而遽徵南道兵則其士卒贏糧往來之弊

不可勝言儻有如此聲息年年不絕則豈可年年徵南道之兵哉五鎮號爲兵強若不能禦此小寇則何所恃哉臣意以謂彼人雖來寇堅城固守勿與相戰慎承善金克忸尹垓議諸姓兀狄哈種類寔繁是勁敵也請依所啓南道諸邑下番別侍衛甲士親軍衛及北道下番別侍衛親軍衛忠贊衛皆令赴防傳曰羣議不一明日更議之

庚辰○召領敦寧以上議政府兵曹曾經永安道觀察使節度使宰相議永安防成便宜鄭昌孫鄭恬金謙光鄭文炯李崇元申浚李克墩呂自新李季全議彼之告變雖不可信豈可盡謂虛事而不之慮也當依所啓施行但咸興以南道路絕遠請以洪原以北下番諸色軍士赴防韓明澮沈澮尹弼商議請依前議施行盧思慎議阿吾地撫夷皆無長城美錢穩城雖有長城亦是賊路儻有賊變此等地面必先受敵請量出六鎮內防禦不緊處精兵分戍不須遠徵南道兵